

# 현대문학사의 '고향'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지난 2005년에 개관한 정지용문학관은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정지용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사진은 1층 전시실 입구.



정지용문학관 1층 전시실에서는 시 낭송 등 다양한 문학체험을 할 수 있다.

넓은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계은 물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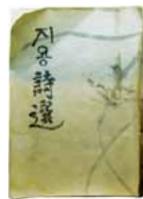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발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풀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배계를 뜯어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정지용 '향수' 중에서

## 사람이 문화자산이다

<13> 시인 정지용과 충북 옥천



정지용의 시에는 풍경이 있다. 그의 시는 한 폭의 풍경화다. 시가 품고 있는 마음은 현실의 어디엔가 있을 법한 공간이다. 시 속의 풍경은 소박하고 아름다워서 뇌리에 인화해 두고 싶을 정도다. 시를 모르는 사람도, 정지용을 모르는 사람도 그의 시를 가슴으로 이해한다. 그의 시는 추억이다.

정지용의 대표작 '향수'는 절창이다. 넓은 벌, 옛이야기, 실개천, 얼룩배기 황소, 금빛 계은... 공감각(시각과 청각) 이미지를 이토록 탁월하게 그려낸 시는 없다. 화려하지도 투박하지도 않는 시어는 스스로 시를 창조한다. 그 시가 구현한 하나의 세계는 꿈처럼 아득하면서도 손에 잡힐 듯 생생하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 그곳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시인 정지용(1902~1950). 그는 충북 옥천이 낳은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다. 그는 섬세하면서도 정감 있는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일군의 평자들이 그의 시를 일컬어 우리말의 '보물창고'라고 말하는 이유다.

예술원회 회장인 유충호 평론가는 '새국어생활 118'에서 "20세기 한국의 시인 가운데서 우리말의 발굴과 조직과 세련에서 가장 세심하게 공들여서 독자들을 황홀하게 한 최초의 시인"이라고 평했다.

정지용의 시가 비단 언어적인 면에서만 빛나는 것은 아니다. 작품이 내재하고 있는 울림과 감성, 철학 또한 여타의 시인들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그는 정록과 시인들이나 서정주, 김춘수 등의 후배 시인들이 넘어서야 할 산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흐른 지금의 문壇들도 정지용의 시를 흠모한다. 아니 그 넘어설 수 없는 지경에 절망하기도 한다.



충북 옥천군에 자리한 정지용문학관 전경.



문학관 바로 옆에 있는 시인의 생가.

옥천 풍광 고스란히 담은  
섬세하고 정감있는 詩語는  
독자를 황홀케 하기에 충분

정지용 생가 옆 문학관 개관  
'지용제'·콘서트·향수 열차  
문학 고장 옥천 국내외 홍보

시인 김지하는 '흰 그늘의 미학을 찾아서'에서 "빛을 품은 어둠, 뭉개 안에서 큰 외침을 가지고 있는 듯하면서도 자기가 애써 억누르고 있는 침묵이 바로 '흰 그늘'"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정지용의 시 세계에서 민족적 서정, 가톨릭, 모더니즘이 따로 놀면서도 말쑥 없이 잘 얹혀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시인의 고향 옥천은 서울에서 충청도와 경상도로 가는 길목이다. 예로부터 사람의 왕래와 물산의 교류가 활발했던 고장이다. 시에 드러난 고향 이미지가 남루하거나 빈한하지 않는 대목과 맞닿은 지점이다. 옥천은 우암 송시열, 충봉 조현, 충신 김문기 등의 고향이다.(정지용생가와 멀지 않은 곳에 옥영수 여사의 생가도 있다.)

옥천의 산세와 지형은 고스란히 시인 정지용의 문학적 자양분이 되었을 것이다. 눈을 둘러보아도 굽이굽이 '옥천(玉川)'이다. 그가 빛어낸 시어는 옥천의 풍광을 담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절묘하게 놓여있다. 기교를 뛰어넘는 표현의 정확성은 그의 시가 지니는 힘이다. 정밀하면서도 절박한, 그러면서도 우아와 범박을 아우르는 지고의 세계다.

읍내에는 시인의 이름을 딴 정지용문학관이

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가락이 흘러나온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풀잎 이슬에 함초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노래 '향수'가 울려 퍼진다. 노래는 언제 들어도 정겹다. 먹어도 먹어도 물리지 않는 밥과 같은 노래다. 당장이라도 고향으로 달려 아늑한 품에 안기고 싶어진다. 흥얼거리며 시인의 흔적을 더듬는다.

"문학관은 지난 2005년 10억원(일부 국비 지원)을 들여 개관했다. 143평 부지에 문학전시실, 영상실, 체험실, 문학교실 등을 갖추고 있다. 체험실에서는 손으로 느끼는 시, 영상시화, 시낭송 등 다양한 문학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시어 검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비,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문화해설사 이재하 씨의 설명이다. 이어 이 씨는 "문학관 바로 옆 생가를 사들이기 위해 수차례 입주권을 취득했다"며 "보상과 이주 등 지난한 과정이 있었지만 정지용을 옥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대응적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옥천군은 문화원과 함께 매년 5월 '지용제'를 개최한다. 서울과 옥천을 운행하는 향수 열차도 운행하고 문학콘서트도 개최한다. 그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문화의 고장 옥천을 국내외에 알리자는 취지다.

그러나 한때 정지용은 불운의 이름이었다. 6·25때 남북되었다는 이유로 그는 현대문학사의 한 페이지에서 누락돼 있었다.(알려진 바로는 1950년 9월경 경기도 동두천 부근에서 폭격에 의해 사망했다고 한다.)

1988년 해금조치 이후로 그는 현대문학사의 전면 등장한다. 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고향을 추억하는 모든 이에게 정지용은 '향수(鄕愁)' 그 자체였다. '차마 잊힐 수 없는' 시인이었다.

/옥천=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사진=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호남유일 이태리가구 직수입 전문점, 2년만의 **빅세일** 7월 25일까지

# 이태리가구 SALE

www.hong79.com

☎1899-0240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SINCE 1990 **홍스케이스** 가구빌딩